

Symposium VI-1

연조직 처치,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허인식 원장
메리트 치과의원



임플란트 주변의 연조직 처치는 골조직에 대한 처치와 더불어 임플란트 치료의 중요한 고려사항들 가운데 하나이다. 임플란트의 심미와 기능에 대한 장기적인 예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 치료 계획을 작성할 때부터 예상되는 연조직처치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조직에 대한 고려는 발치와에 대한 처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치료 후 유지관리까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먼저 계획하고 있는 임플란트 술식에 따라 발치와에 대한 처치 방법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무치악 부위에서는 무엇보다 각화치은의 상태가 연조직 처치의 중심에 위치한다. 적절한 폭의 각화 치은은 임플란트의 수술과 보철, 향후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유지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철 과정도 임플란트 주위 점막의 안정적인 유지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임플란트의 성공을 위한 연조직 처치를 시기별로 나누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치아를 발거할 당시에는 어떠한 연조직 처치가 필요하고, 수술 전에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일차수술과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는 이차 수술 시에는 어떠한 연조직 처치가 필요하며, 보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학력 및 경력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치주과 수련

치의학박사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 외래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삼성병원 치주과 외래 조교수